

##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13, “그러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증거하는 중 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였다.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늘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들이다.

### 믿음

첫째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항상 있어야 한다.

#### 믿음의 대상

모든 사람은 세상의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6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했다. 우리는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한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이시라고 말씀하셨다(요 4:24).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라고 표현했다(딤후 6:16).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지만,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의 외아들을 구주로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으셨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

이제 죄인들은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 **믿음은 행위와 구별됨**

이 믿음은 행위와 구별된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었다(롬 3:20-22). 그러므로 로마서 3장은 이 문제에 결론을 내린다. 로마서 3: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로마서 4:5에서 “일[행위]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했다. 믿음은 빈 손과 같다. 이것 없이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으나 이것 자체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자랑할 뿐이다.

##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됨**

이 믿음은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을 통해 생기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은혜를 주셔서 영생에 이를 택자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요 6:37)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말씀하셨다(요 6:44). 또 사도행전 13:48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증거하였다. 택자들만 믿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8-9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했고, 또 로마서 9:16에서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과 영생을 위해 필수적이며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이다.

## 소망

둘째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항상 있어야 한다.

### 믿음은 소망을 포함함

참 믿음은 소망을 포함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소망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18-21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증거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말했다.

##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허무함

실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허무하다.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였다(시 39:5-7).

전도서 1:2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고, 전도서 12:8도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다. 세상은 허무한 세상이다.

이사야 40:6-8은 이렇게 말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붉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 우리의 소망의 내용은 천국과 부활과 영생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속한 헛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다.

사도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했다(벧전 1:3-4). 베드로가

말한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은 천국을 가리켰다.

히브리서 11:16은 말하기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 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하였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 간직된 그 성을 소망한다.

우리는 또 몸의 부활을 소망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된 몸의 부활에 대해 밝히 증거하였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전 15:42-44, 51-52).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단지 죽은 몸의 회생 정도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은 자기의 죽음을 구차히 피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35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기록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 현재의 몸의 회생 정도가 아닌, 참으로 복된 부활의 몸이 있다.

### **소망은 인내를 만듦**

소망은 인내를 만든다. 소망하는 자는 인내할 수 있다. 또 그 인내는 우리가 온전한 인격자로 성숙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라고 말했다(롬 5:3-4).

## 사랑

셋째로, 우리에게는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한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고 참된 소망은 인내를 통해 성숙한 인격으로 나타난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결실이다. 주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눅 8:15). 참된 믿음과 소망은 좋은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할 것이다. 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들도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마 6:19-20). 주께서는 전도와 구제를 위해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라고 교훈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하였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딤후 6:17-18).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세상의 돈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것들이 어느 날 불타버릴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신앙생활은 본질

적으로 내세지향적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사랑은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사랑의 행위가 없이 믿음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입술의 고백이며, 소망을 말하는 것도 모순일 뿐이다. 사랑이 수반될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그 진실됨이 증명될 것이다.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되고 영생을 얻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음이 된다. 믿음이 없다면 구원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들을 믿고 소망해야 한다. 우리는 천국을 믿고 소망해야 하며 몸의 부활을 믿고 소망해야 하며 영생을 믿고 소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우리의 소망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힘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자들은 고난을 참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은 참된 믿음과 소망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진실성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자.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점검해보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는가?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며,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시는가?